

열린세상



정진타
월간국장 겸 논설위원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다시 대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른바 리턴매치로 한 번 빼놓은 바 있는 클린턴이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주장이 현지 매체 토크쇼 등에서 흘러나온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와 많은 사람의 예측을 깨고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놀렸다.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재선 출마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그의 나이가 발목을 잡고 있다. 1942년생인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80세로 집권 2기를 성공한다 해도 2025년 1월 취임 맨 83세가 된다. 전 세계 경찰국가 미국의 수장이 너무 고령이라고 현지 유권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그를

대신해 출마할 인물을 찾다 보니 클린턴 전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임기 4년인 미국 대통령은 국정 실패가 크게 없는 한 4년 연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단아로 불린 트럼프는 미국 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예측불허의 지도자로 낙인찍혀 4년 임기로 그쳤다. 그는 전통적 인 국제 동맹을 무시해버려 우방국으로부터 원성을 듣기 일쑤였다. 미국 국민도 진정미리를 내며 그에 대한 안내심의 바닥을 드러냈다.

임기 4년 내 성과 도출 한계

상식적으로 임기 4년이면 국정을 제대로 평가하고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인들은 현직 대통령이 아주 능력이 없거나 이런저런 스캔들로 훈련되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집권 초기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인식을 일정 부분 공유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이따금 나온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정을 끌 수 있게 임기 4년을 한 번 더 주는 기회를 헌법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논의에 불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다.

한국 대통령 임기는 단임이지만 지방정

부의 단체장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며 연속 3회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를 보면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 이후, 1995년 지자체장 첫 직선 이후 연임 시장은 박광태뿐이다. 그는 민선 3기와 4기를 역임했다. 다른 역대 시장은 모두 임기 한 번으로 끝났다.

연임을 못 한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상 부족과 시정 난맥, 임기 중 비리 사건, 정치적 환경 급변 등이 제기된다. 이외에 시민들의 조급함, 그러니까 단체장의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감의 여유가 부족했을 수 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다. 민선 7기를 거치는 동안 선거학습은 물론 단체장을 보는 정치적 안목, 그리고 지역경제 규모 확대 등으로 평가 방식이 다각화했다. 특히 인물 생김새부터 청렴 및 도덕성, 업무 추진력, 대정부 소통 및 협력, 대시민 공감 능력까지 두루 거론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분명히 이런 점들이 선택의 자대가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볼 것은 이번 지방선거, 특히 광주시장 선거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우선시 돼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다.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시정이 이에 맞춰 작동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상회복을 할

때까지는 큰 틀이 달라지지 않을 듯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혁신 업무가 밀릴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력과 미래를 보는 안목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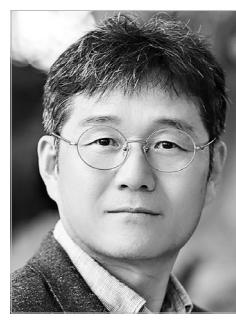
미래 안목·추진력 최우선

광주시는 현재 지역 및 국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중심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뒤따라야 하고 전문지식이 수반해야 한다. 또 출범하는 새 정부를 맞아 국토균형발전이란 시대 정신을 구현할 실천력을 겸비하고 대정부 협력을 이끌어낼 행정 경험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초광역 도시를 목표로 인근 지자체와 각종 사업을 협상 중이며 도시 내부적으로 개발을 이끌어야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 간 이견과 갈등을 조정할 능력, 경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 부합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성과 도출을 위해 4년을 더 기다려주는 것이 현명한가, 아니면 바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게 좋은가. 만일 미국 유권자들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 광주시민들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

기고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

가축방역관(수의직공무원)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수의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수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다. 수의과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10개 대학에 있다. 건국대만 유일하게 사립대학이며 나머지 9개 대학은 거점국립대학교이다.

수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5과목 평균 수능이 1.5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40만 명의 수험생 중에 성적이 상위 4%에 들어야만 입학이 가능해진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시급하다

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근에는 '의치한 수'라는 말이 있다. 각각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를 가리키는 말인데 수의과대학의 명성이 의학계열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2년 과정의 예과와 4년 과정의 본과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수의사면허증이 주어진다.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임상수의사와 비임상수의사로 진로가 나뉘게 되는데 절반 정도가 비임상수의사로 근무를 한다. 비임상수의사의 일부가 공직으로 진출한다.

이렇게 장황하게 수의사가 되는 길을 설명한 이유는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고 인고의 노력이 있어야 수의사가 되는데 공직사회에 대우는 턱없이 부족하다. 2000년도에 구제역(FMD), 2003년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20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등 국가재난형 질병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운영된다. 최일선 방역 현장에 근무하는 가축방역관은 심각한 희생을 강요받을 것이 뻔하다. 코로나19 의료현장의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6년 전문 과정을 마친 수의사의 수준에 맞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

중에서도 가축방역관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수의사가 공직을 기피하고 가축방역관이 이직 또는 사직하고 있다.

이 시간에도 사직하는 가축방역관은 계속 나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가축방역관의 낮은 처우와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노동으로 이어진 열악한 근무환경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서 폭발한 것이다.

지난해 2월 32명의 수의직공무원 채용 계획이 공고되었으나 단 2명 만이 합격했다. 사직 자리에 채용공고가 나가도 오려는 수의사가 없다.

그래서 가축방역관 빈자리는 남아있는 가축방역관들의 노동 강도를 더 올리게 되고, 결국은 사직자가 더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렇게 공직을 떠나는 가축방역관이 많다 보니 동물방역 현장의 현실은 아주 심각하다. 가축방역관 대신 공중방역수의사와 행정직 또는 축산직 공직자가 공백을 메우고 있다. 동물방역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다. 정부에서는 가축방역관의 낮은 처우와 고강도 노동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19 의료현장의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6년 전문 과정을 마친 수의사의 수준에 맞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

하기를 희망한다.

동물질병의 문제는 이제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반의 문제가 됐다. 신종 감염병의 70%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보고되는 현재 인간의 건강은 동물의 건강과 직결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인간과 동물, 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 헬스(One Health)에 주목하고 있다.

동물의 건강=인간의 건강이 직결되어 있다. 동물방역에 공백이 생긴다면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유비무환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뜻이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곧든 타임을 놓친다면 동물방역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곧 인간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1998년부터 6년째 수의과대학으로 학제가 개편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과제로만 머물러 있던 수의직 공직자 확충과 처우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방역관 방역 고용업무에 배치하지 않고 타업무를 수행도록 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사례다. 현재 시·군에서 조례 개정만으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없다.

경찰에서도 스쿠터 이용자들에 대해 앙조끼나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고예방을 위해 차도 주행 및 야간 주행을 피하는 한편 판매업자 역시 안전장치 설치 등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안전 교육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이다. /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독지광장

사회적 약자 이동수단 안전이 우선

최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일명 전동스쿠터라는 전동휠체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휠체어가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좁고 유통불통한 인도가 불편하다며 차도로 나서면서 사고위험에 노출돼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용자들은 드문 실정이다. 예전에 이용자 대부

분이 보행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여서 교통사고에 직면할 경우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 사실상 불가능한 혼란인 데다 일부 구형 전동 휠체어의 경우 약간 운전에 필요한 안전장치마저 구비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닫히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이용자들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도 스쿠터 이용자들에 대해 앙조끼나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고예방을 위해 차도 주행 및 야간 주행을 피하는 한편 판매업자 역시 안전장치 설치 등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안전 교육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이다. /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 |
|---------------|-----------|
| ▲ 이주여성 긴급전화 | 1577-1366 |
| ▲ 응급질병상담 | 1339 |
| ▲ 미아·기출인 신고 | 182 |
| ▲ 여성 긴급전화 | 1366 |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 1388 |
| ▲ 아동보호전문기관 | 1577-1391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 ▲ 응급의료센터 | 1339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1989년 6월 29일 창간 | | 전남매일 |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
|--|-------------------|--------------|------------------------------|
| 회장 | 朴哲弘 |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金善男 |
| 대표전화 062) 720-1000 | | | |
| 정 치 부 | (062) 720-1060~62 | 편 치 부 | (062) 720-1073 |
| 경 제 부 | (062) 720-1066~67 | 논 설 실 | (062) 720-1006 |
| 사회체육부 | (062) 720-1050~53 | 전 산 실 | (062) 720-1033 |
| 사 회 2 부 | (062) 720-1043 | 월 간 국 | (062) 720-1007 |
| 동부권본부 | (061) 743-4200~01 | 판 매 국 | (062) 720-1004 |
| 문 화 부 | (062) 720-1071 | 사 업 국 | (062) 720-1011, 1099 |
| 사 진 부 | (062) 720-1040 | 광 고 국 | (062) 720-1016~17 |
| 기획팀사무부 | (062) 720-1045~46 | 관 리 국 | (062) 720-1012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첨부 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 | | |
| 기사제보 | | | |
| • TEL (062) 720-1050~53 | | | |
| • 서면부 010-5601-2219 | | | |
| • FAX (062) 720-1080 | | | |
| • E-mail jndn100@chol.com | | | |
| 광고문의 | | | |
| • TEL (062) 720-1016~17 | | | |
| • FAX (062) 720-1020 | | | |
| • E-mail jnnm100@hanmail.net | | | |

사설

'민주화 어머니' 영면을 기원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인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9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배 여사는 최근 지병이 악화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전날 쓰러져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눈을 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